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 자아정체감, 가족기능과의 관계

Relationship Among Subjective well-being, Self-identity and Family function of Nursing Students

김효정

안동과학대학교 간호학과

Hyo-Jeong Kim(rellakim@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자아정체감, 가족기능의 관계를 파악하고 고찰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K, C도에 소재한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583명을 대상으로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와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 주관적 안녕감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학년, 종교, 경제상태, 학교생활 만족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아정체감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종교, 경제상태, 학업성적, 학교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족기능은 경제상태, 전공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안녕감, 자아정체감, 가족기능은 서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주관적 안녕감, 자아정체감, 가족기능을 고려한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 중심어 : | 자아정체감 | 가족기능 | 안녕감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subjective well-being, self-identity and family function of nursing student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he participants were 583 nursing students of three nursing colleges.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1st of march 2011 to 31th of march in 2012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12.0 program. Subjective well-being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grade, religion, economic state,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major satisfaction and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Self-identit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religion, economic state,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and major satisfaction. Family func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economic state, major satisfaction. Subjective well-being self-identity, and family function are positive correlations each other. In conclusion, the program that consider nursing students' subjective well-being, self-identity and family function influences positive effect on the college life.

■ keyword : | Self-Identity | Family | Well-Being |

* 본 연구는 2013년도 안동과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접수일자 : 2013년 11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1월 10일

수정일자 : 2013년 12월 13일

교신저자 : 김효정, e-mail : rellakim@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웰빙 'well-being' 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은 개인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주관적인 감정으로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1]. 주관적 안녕감은 '행복' 이란 개념의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다[2]. 우리나라에서는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사용되었으며 그 외에도 개인의 행복, 생활만족, 삶의 만족과 같은 의미로도 사용된다[3-6].

개인은 삶에 대한 목표를 진행시키거나 달성하게 될 경우 행복감을 갖게 되며, 이러한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 감정을 많이 경험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은 향상된다[1][4]. 따라서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이 자율적인 성취활동을 통해 지각되는 감정으로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4].

대학생활은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역량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7].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와 취업난으로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자신의 관심과 흥미보다는 가족이나 친지의 권유로 취업이 용이한 학과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의해 간호학과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학입시에 대한 과열 경쟁은 부모로부터 독립되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대학시기로 지연시키기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8][9].

대학생활 동안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이전 보다 넓어진 사회 문화적, 경제적 환경으로의 적응의 문제, 가치관 혼란의 경험, 취업을 향한 경쟁으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7], 이 때 타인의 기대나 권유에 의해 전공학과를 선택한 대학생들의 상당수는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이 더욱 어려워져 부적응 상태에 머물게 되고 정서적으로도 심한 갈등과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10][11]. 특히 간호학과는 학교수업과 임상실습이라는 이원화된 교과과정으로 타과에 비해 요구되는 학습량이 많고 다양한 실습환경과 의료진을 경험해야

하고 환자들과의 치료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심층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호대학생들은 교과과정을 이행하는데 보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9][12]. 따라서 대학생들이 그들의 대학생활에서 긍정적 인식을 도모하는 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며 간호대학생들이 자각하는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생들이 자신의 행복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과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자기상을 확립해야 하며, 과거로부터 미래에 대한 자기인식을 통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개인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13]. 자아정체감은 자신에 대한 신념, 수용적 태도이며 또한 심리적 여유를 지니고 현실에 건전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대응하게 함으로써 원만한 적응을 돕는다[14][15]. 따라서 대학시기에 자아정체감의 발달이 지연될 경우 개인의 주체성이나 신념이 확립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다양한 대인관계 속에서 우울과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진다[11][16].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젊은 연령층의 자살과도 관련지어 고려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11][17] 자아정체감은 대학입시로 인해 지연된 발달과업에 대한 평가로도 의미가 있으며, 또한 대학생활의 주관적 안녕감을 형성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8][9].

대학생들은 가족을 통해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여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기도 한다. 또한 대학생들은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부모와의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하기도 하며, 심리적 애착을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한다[18-20]. 가족은 우울감과 같은 개인의 부정적 정서를 개선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14] 대학 시기는 부모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환경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첫 시기인 만큼 대학생들이 삶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며, 가족의 기능적인 수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21].

그동안 대학생들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평가하

기 위한 시도로 주관적 안녕감을 변수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11][13][22][23].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은 부모애착이나 동료 애착[22]과 관련이 있었으며[22], 자기효능감이나 학교생활만족도, 관계만족도 또한 대학생들이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기여하고 있었다[23]. 그 외에도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주관적 삶의 질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1][13]. 그러나 대학생들에게 간과될 수 없는 가족기능이나 자아정체감을 변수로 한 연구는 없었으며, 대학생활에 대한 보다 긍정적 인식이 필요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간호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 자아정체감, 가족기능 정도를 알아보고 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상자의 주관적 안녕감, 자아정체감, 가족기능 정도를 알아보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주관적 안녕감, 자아정체감, 가족기능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 자아정체감, 가족기능의 차이를 분석한다.
- 셋째, 주관적 안녕감, 자아정체감, 가족기능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은 행복이라는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형성된 용어로 객관적인 삶의 상황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 경험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개인이 판단하고 느끼는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의 삶의 모든 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한다[4][6]. 본 연구에서는 Campbell의 주관적 삶의 질 척도(Index of Well-Being)를 이명신[24]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은 자기의 능력, 위치, 역할에 대한 지각과 자아개념을 포함한 종합적인 자기 상(image)으로[16] 본 연구에서는 조명실[25]의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가족 관계 속에서 체계의 완전함을 유지하고 가족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체계를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가족의 행위 또는 역동성을 말한다. 가족기능은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을 의미한다. 가족응집력이란 가족성원들이 그들 가족과 분리되거나 연관되는 정도로, 가족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정서적 유대를 말하며, 가족적응력이란 가족체계가 유연하고 변화할 수 있는 정도로 가족체계가 상황적, 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그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규칙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26]. 본 연구에서는 Olson, David, Barnes이 개발한 FACE (Family Adaptability Cohesion Evaluation Scale)-III 를 김윤희[27]의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상자의 주관적 안녕감, 자아정체감, 가족기능의 정도를 파악하고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K, C도에 소재한 3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협조와 동의를 받아 대상자를 편의 추출 하였다. 연구자는 대상학년의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에 대상자들에게 연구자에 대한 소개 및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지의 취지와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관해 설명하였고 연구의 취지와 응답을 원치 않은

경우는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구하고 설문조사에 응하게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 까지였고 총 6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620부 수거되었고 설문내용에 불충분하게 답한 총 37부를 제외한 총 583부를 연구결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측정 도구는 Campbell의 주관적 삶의 질 척도(Index of Well-Being)를 이명신[2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최근의 경험에 대한 감정인 삶에 대한 느낌을 측정하는 8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당신은 지난 몇 달 동안 어떻게 느끼셨습니까?”에 대해 ‘재미있는-지루한, 즐거운-비참한’ 과 같이 긍정 및 부정의 대비되는 7점 척도의 짝을 이룬 형용사의 어느 한 곳에 표시하게 되어 있으며, 8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신[24]의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이었다.

■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은 조명실[25]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3문항으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다고 표현한다.

조명실[25]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이었다.

■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Olson, David, Barnes가 개발한 FACE (Family Adaptability Cohesion Evaluation Scale)-III를 김윤희[27]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좋음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가족기능이 나쁨을 의미한다.

Olson, David, Barnes [26] 연구에서의 가족기능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6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7이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1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관적 안녕감, 자아정체감, 가족기능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 자아정체감, 가족기능 정도는 t-test와 ANOVA로 사후검증은 Duncan test를 이용하였다.
- 3) 주관적 안녕감, 자아정체감, 가족기능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중 여학생이 524명(89.9%)로 남학생보다 많았으며, 학년은 1학년은 147명(25.2%), 2학년은 221명(37.9%)이었으며, 3학년은 215명(36.9%)이었다. 종교는 ‘없다’ 고 응답한 대상자가 303명(52.0%)이며, 경제상태는 ‘중’이 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510명(87.5%)으로 가장 많았다. 학업성취도는 ‘상’ 이라고 응답한 자가 166명(28.5%) ‘중’ 이라고 응답한 자는 259명(44.4%), ‘하’ 라고 응답한 자는 158명(27.1%)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보통이다’ 고 응답한 대상자가 244명(4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공에 대하여는 ‘만족한다’ 고 응답한 자가 321명(55.1%)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중 임상실습을 경험한 자는 전체 436명(74.8%)으로 대부분 2, 3학년이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583)

일반적특성	변수	n	%
성별	남자	59	10.10
	여자	524	89.90
학년	1학년	147	25.20
	2학년	221	37.90
	3학년	215	36.90
종교	있음	280	48.00
	없음	303	52.00
경제상태	상	7	1.20
	중	510	87.50
	하	66	11.30
학업성적	상	166	28.50
	중	259	44.40
	하	158	27.10
학교생활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39	6.70
	만족한다	228	39.10
	보통이다	244	41.90
	만족하지 않는다	61	10.5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1	1.90
전공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138	23.70
	만족한다	321	55.10
	보통이다	109	18.70
	만족하지 않는다	9	1.5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6	1.00
임상실습경험	있다	436	74.80
	없다	147	25.20

2. 대상자의 주관적 안녕감, 자아정체감, 가족기능 정도

대상자의 주관적 안녕감, 자아정체감, 가족기능 정도는 다음과 같다[표 2]. 주관적 안녕감은 4.51±1.11이었으며, 자아정체감은 3.08±0.40, 가족기능은 3.36±0.51이었다.

표 2. 주관적 안녕감, 자아정체감, 가족기능 정도 (N= 583)

변수	M ± SD	Range
주관적 안녕감	4.51±1.11	1~ 7
자아정체감	3.08±0.40	1~ 4
가족기능	3.36±0.51	1~ 5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 자아정체감, 가족기능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 자아정체감, 가족기능의 평균값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 자아정체감, 가족기능 (N= 583)

일반적 특성	변수	주관적 안녕감			자아정체감			가족기능		
		M ± SD	t/F	P	M ± SD	t/F	P	M ± SD	t/F	P
성별	남자	4.99±1.03	3.52	<.001	3.20±0.39	2.35	.009	3.38±0.50	0.22	.413
	여자	4.46±1.10			3.07±0.41			3.36±0.51		
학년	1학년	4.56±1.02 ^a	12.32	<.001	3.09±0.43	0.96	.383	3.33±0.53	0.46	.630
	2학년	4.29±1.12 ^b			3.05±0.42			3.37±0.49		
	3학년	4.51±1.08 ^c			3.10±0.37			3.38±0.51		
종교	있음	4.61±1.11	2.79	.026	3.13±0.41	2.99	.001	3.39±0.52	1.30	.097
	없음	4.43±1.11			3.03±0.40			3.34±0.50		
경제상태	상	4.61±1.33	4.14	.016	3.23±0.45 ^a	10.12	<.001	3.78±0.57 ^a	6.20	.002
	중	4.56±1.06			3.10±0.39 ^b			3.38±0.50 ^b		
	하	4.15±1.30			2.87±0.48 ^c			3.20±0.38 ^c		
학업성적	상	4.57±1.09	2.90	.056	3.18±0.43 ^a	9.78	<.001	3.35±0.48	0.36	.695
	중	4.59±1.07			3.07±0.38 ^b			3.38±0.52		
	하	4.33±1.15			3.08±0.42 ^c			3.34±0.52		
학교생활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5.58±0.83 ^a	30.62	<.001	3.25±0.38 ^a	17.36	<.001	3.23±0.45	1.59	.173
	만족한다	4.77±0.96 ^b			3.18±0.35 ^b			3.25±0.48		
	보통이다	4.34±1.02 ^c			3.04±0.39 ^c			3.39±0.51		
	만족하지 않는다	3.90±1.19 ^d			2.82±0.42 ^d			3.36±0.6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74±0.96 ^e			2.59±0.62 ^e			3.48±0.63		
전공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4.95±1.05 ^a	13.39	<.001	3.32±0.34 ^a	33.79	<.001	3.43±0.49 ^a	3.89	.004
	만족한다	4.52±1.04 ^b			3.08±0.36 ^b			3.39±0.49 ^b		
	보통이다	4.07±1.15 ^c			2.84±0.39 ^c			3.25±0.52 ^c		
	만족하지 않는다	3.50±1.19 ^d			2.45±0.60 ^d			2.95±0.65 ^d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3.77±1.80 ^e			2.78±0.20 ^e			3.24±0.72 ^e		
임상실습경험	있다	4.40±1.11	-4.50	<.001	3.07±0.40	-0.35	.360	3.38±0.50	0.95	.169
	없다	4.50±1.02			3.09±0.43			3.33±0.53		

주관적 안녕감은 성별($t=3.52, p<.001$), 학년($F=12.32, p<.001$), 종교($t=2.79, p=.026$), 경제상태($F=4.14, p=.016$), 학교생활 만족도($F=30.62, p<.001$), 전공만족도($F=13.39, p<.001$), 임상실습경험($t=-4.50, p<.001$)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대학교 1학년의 주관적 안녕감이 2, 3학년 보다 더 높았다. 또한 종교가 없는 대상자 보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의 주관적 안녕감이 더 높았으며, 학교생활과 전공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 고 응답한 대상자의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높았다. 임상실습에서는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는 대상자의 주관적 안녕감이 임상실습을 경험한 대상자 보다 더 높았다.

자아정체감은 성별($t=2.35, p=.009$), 종교($t=2.99, p=.001$), 경제상태($F=10.12, p<.001$), 학업성적($F=9.78, p<.001$), 학교생활 만족도($F=17.36, p<.001$), 전공만족도($F=33.79, p<.001$)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자아정체감은 여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종교가 없는 대상자 보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의 자아정체감이 더 높았다. 또한 학업성적은 '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자아정체감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생활과 전공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 고 응답한 대상자의 자아정체감이 가장 높았다.

가족기능은 경제상태($F=6.20, p=.002$), 전공만족도($F=3.89, p=.004$)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경제상태가 '상'이라고 인식한 대상자들의 가족기능 정도가 더 높았으며, 전공에 대하여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고 응답한 대상자의 가족기능이 가장 낮았다.

4. 주관적 안녕감, 자아정체감, 가족기능의 관계

대상자의 주관적 안녕감은 자아정체감 ($r=.46, p<.001$), 가족기능($r=.22, p<.001$)과 정적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아정체감과 가족기능($r=.24, p<.001$)간에도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표 4].

표 4. 주관적 안녕감, 자아정체감, 가족기능의 관계 (N= 583)

변수	주관적 안녕감 r(p)	자아 정체감 r(p)	가족 기능 r(p)
주관적 안녕감	1		
자아 정체감	.46 (.001)	1	
가족 기능	.22 (.001)	.24 (.001)	1

IV. 논의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은 전체 평균이 7점 척도에서 4.51점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도구가 일치하지는 않았으나, 주관적 안녕감이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정서 경험을 측정하는 도구임을 고려해 볼 때[4][6], 일반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의 긍정적 정서를 전체 평균 7점 척도에서의 4.45점으로 확인한 고영남[22]의 연구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삶에 대한 주관적 안녕감이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부정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은 성별, 학년, 종교, 경제상태, 학교생활 만족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경험 유무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 남학생은 여학생 보다 주관적 안녕감이 더 높았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고 보고한 고영남[2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임미향[2]은 그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행복을 인식하는 정도는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과 경제 능력이 향상되는 지금 더 이상 성별에 의한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관적 안녕감은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1학년의 주관적 안녕감이 2, 3학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문대학의 임상실습 일정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간호전문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2, 3학년에 임상실습을 경험한다. 따라서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1

학년이 임상실습을 경험한 2, 3학년 보다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사실은 임상실습이라는 변수가 간호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임상실습은 졸업 시까지 10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간호학과의 중요한 실습교육과정으로[12] 학교가 아닌 임상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간호사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론교육과정에 비해 실습만족도는 대부분 낮게 평가되기도 한다[9]. 위와 같은 이유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2, 3학년들은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1학년에 비해 대학생활에 대한 불만족감과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을 것이며[9]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시키는 작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의 주관적 안녕감은 종교가 없는 대상자보다 더 높았다. 박현숙과 권복순[5]은 대학생의 종교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기독교를 가진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최명심, 손정락[13]은 전체적인 삶의 질은 종교의 유무와 관련이 있으며, 종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삶의 질이 높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결과는 심리적 안정과 평안을 제공할 수 있는 종교의 고유한 특성과 관련되며, 종교를 갖고 있는 대상자들이 종교가 없는 대상자 보다 삶을 더 긍정적이고 만족스럽게 자각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19].

주관적 안녕감은 경제상태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최명심, 손정락[13]은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돈 보다는 가족의 경제적 소득 수준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박혜숙[6]은 개인의 행복정도는 가족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임미향[2]의 연구 또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는데, 임미향[2]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인 직업, 교육수준은 아이에게 행복감을 주지는 못하지만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고 설명

하였다.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이 대학생에게 스스로 원하는 취미활동 및 생활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6].

주관적 안녕감은 학교생활 만족도,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학교생활과 전공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 고 응답한 대상자의 주관적 안녕감이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더 높았다. 정여주와 홍성례[23]는 대학생들이 자각하는 학교생활 만족도는 주관적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박혜숙[6]은 전공에 대하여 만족한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행복감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은 전체 평균이 4점 척도에서 3.08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현지와 김명희[7]의 결과에서 자아정체감은 평균 11점 척도에서 5.23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도구의 불일치성으로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비교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전공과 졸업 후 진로가 일치되는 간호학과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서, 간호학과는 타 학과에 비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취업에 대한 불안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용이하게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통합하게 하여 정체성 확립에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7][13].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종교, 경제상태, 학업성적, 학교생활 만족도,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자아정체감은 여학생 보다 더 높았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정체감이 높은 반면 여학생은 상대적으로 남학생 보다 우울성향이 더 높다고 한 이현지와 김명희[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남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여학생보다 높다고 한 윤여경[7]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박아칭[28]은 남자 대학생의 경우 소속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의 안정도와 적응도가 높을수록 정체감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여 남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여학생 보다 높은 것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공 및 학과에 대한 분명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안정도와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설명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교가 있는 대상자들의 자아정체감이 종교가 없는 대상자 보다 더 높았다. 이는 우순기[2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우순기[21]는 그의 연구에서 신앙은 그 내용과 배경에 있어서 반드시 종교적인 것만은 아니며,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관계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나와 다른 사람을 파악하는 방식인 보편적 관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종교는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경제상태가 '상'이고 학업성적이 '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자아정체감이 가장 높았고 학교생활과 전공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자아정체감이 가장 높았는데, 윤여궁[7]은 자아정체감에는 전공만족도와 용돈이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학교생활의 적응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다고 하여 부분적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정세화[20]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데 정세화[20]는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학교환경 및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고 학교생활의 적응이 원활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가족기능은 전체 평균이 5점 척도에서 3.36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영남[22]의 연구에서도 비록 부모애착이라는 변수로 조사를 하였으나, 평균 5점 척도에서 부모애착 점수가 3.83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대학생들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부모 및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이나 사랑이 그들의 발달단계에서 삶을 인식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생의 발달단계 별로 가족기능이나 부모애착 정도를 확인하여 그들의 주관적 안녕감이나 자아정체감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은 경제상태,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배경희와 김은하[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청소년들은 경제 사회적 상태에 따라 가족기능을 차등적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중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일수록 가족기능을 높게 평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공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가족기능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조결자, 박순복, 이명희[2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연변조선족 간호대학생들 중 간호학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가족기능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은 자아정체감, 가족기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자아정체감, 가족기능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증가하였다. 정세화[20]는 스스로에 대해 정체감을 잘 형성할수록 자아상이 일관되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정서적으로 안녕감을 갖는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윤여궁[7]의 연구 또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는데, 윤여궁[7]은 그의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은 대학생활적응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아정체감의 발달이 대학환경에서 경험하는 대학생들의 정서적 문제를 조절하고 적응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임미향[2]은 부모 자녀 관계에서 성취 압력과 죄송함, 존경은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상관관계를 이루며, 갈등, 적대, 통제는 부적상관관계를 이룬다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가족기능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본다. 고영남[22]은 대학생이 주관적 안녕감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동료간의 애착을 형성하고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부모 애착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의 긍정적 정서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비록 가족기능과 부모애착의 개념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나, 부부를 중심으로 소수의 자녀로 이루어지는 핵가족 형태에서 부모는 곧 가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부모 자식 간의 긍정적인 정서는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아정체감이 증가할수록 가족기능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배경희와 김은하[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체감을 가진 인격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가족의 역할이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14].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자아정체감과 가족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뿐만 아니라 주관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임상실습 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며[30] 질 높은 실습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기여한다고 하여[31] 임상실습 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개선활동이 필요하다. 우선 임상실습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지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다양한 임상지도 교수법을 개발하는 것과 현장실습 지도자와의 긴밀한 교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실습과 관련된 학생들의 고충을 수렴 보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임상실습에서의 가족의 지지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만족감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12] 본 연구결과 가족기능은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은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이론 및 실습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 설명과 가족지지 및 역할의 중요성 및 부모 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격려하여 가족이 보다 기능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정체감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지만 자아정체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받는 변수임을 고려할 때[28] 간호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고충을 수렴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곧 대학생활의 안녕감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중재가 잘 계획되고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 지도 교수제도를 활용하여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K, C도를 중심으로 간호대학생을 편의 추출하였기 때문에 추후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반복 연구를 통하여 세 변수간의 관련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 자아정체감, 가족기능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주관적 안녕감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학년, 종교, 경제상태, 학교생활 만족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아정체감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종교, 경제상태, 학업성적, 학교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족기능은 경제상태, 전공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안녕감, 자아정체감, 가족기능은 서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주관적 안녕감, 자아정체감, 가족기능을 고려한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대학, 학제, 지역, 등 다양한 환경적 변수를 고려한 반복 연구를 제언 한다.

둘째,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가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1] 권석만,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학지사, 2012.
- [2] 임미향, *青年的 삶의 質과 學業成就에 대한 研究 :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및 성격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3] A. Campbell,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31, No.2, pp.117-124, 1976.
- [4] D. G. Myers and E. Diener,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s*, Vol.6, No.1, pp.10-19,

- 1995.
- [5] 박현숙, 권복순,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제15권, 제1호, pp.48-56, 2006.
- [6] 박혜숙, “대학생의 행복도와 양생실천정도와의 관련성”, *동서간호학연구지*, 제18권, 제1호, pp.31-39, 2012.
- [7] 윤여궁, *대학 신입생의 자아정체감과 대학생활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8] S. Boughn, “Why women and men choose nursing,” *Nursing and Health Care Perspectives*, Vol.22, No.1, pp.14-19, 2001.
- [9] 김인숙, 장윤경, 박수호, 송소현,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수행능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2호, pp.339-347, 2011.
- [10] 장문영,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귀인성향 및 진로 결정수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11] 김경순,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12] 박완주, 한지영,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수효율성, 가족지지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구조방정식 모형구축”,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3호, pp.365-375, 2011.
- [13] 최명심, 손정락, “대학생의 주관적 삶의 질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2권, 제2호, pp.289-305, 2007.
- [14] 배경희, 김은하,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가족기능, 자아정체감과 우울과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제13권, 제3호, pp.357-366, 2007.
- [15] 이현지, 김명희,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무망감, 우울, 자살사고의 관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4권, 제3호, pp.243-264, 2007.
- [16] E. H. Erikson,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1968.
- [17] M. Donald, J. Dower, I. Correa-Velez, and M. Jone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medically serious suicide attempts: a comparison of hospital-based with population-based samples of young adults,”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Vol.40, No.1, pp.87-96, 2006.
- [18] 양옥경, “가족개념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제7호, pp.175-199, 2001.
- [19] 박현숙, 구현영,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완충효과”, *정신간호학회지*, 제18권, 제1호, pp.87-94, 2009.
- [20] 정세화, *부모 애착, 자아정체감이 기독교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21] 우순기, *청소년 자아정체성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22] 고영남,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 동료 애착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제17권, 제1호, pp.246-269, 2011.
- [23] 정여주, 홍성래,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삶의 질 관계 연구-학교생활만족도와 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복지학회지*, 제14권, 제3권, pp.239-257, 2012.
- [24] 이명신, *근로자의 주관적 삶의 질과 그 영향 요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25] 조명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26] D. H. Olson, H. David, and H. L. Barne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flex mode,” *Family Process*, Vol.56, No.2, pp.438-447, 1995.
- [27] 김윤희, *부부관계, 부모 자녀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 비행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28] 박아청, “한국대학생의 가정과 학교생활적응이 개체화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심리학회, 제19권, 제2호, pp.519-542, 2005.
- [29] 조결자, 박순복, 이명희, “연변조선족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자아효능감의 관계”, 동서간호학연구지, 제14권, 제2호, pp.24-31, 2008.
- [30] 구현영, 임형석, “학제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pp.311-321, 2013.
- [31] 최지혜, 박미정,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방법론적 트리아앵글레이션 적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pp.339-349, 2013.

저 자 소 개

김 효 정(Hyo-Jeong Kim)

정회원



- 2000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07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안동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의사소통, 청소년, 정신건강